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123억 주식투자

첫 전수조사 281명·8억5000만원 확인... “10월 계좌압류”
제주시는 12억 상당 채권까지 확보... 특별정리기간 운영

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
주식거래 계좌에 대한 첫 전수조사
를 벌인 결과, 압류 대상 체납액이
8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
사 22곳에 지역내 체납자의 주식계
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해 지방세를 체납한 281명이 1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가운데 압류 대상 체
납액은 8억2500만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50만원 이상 지방세 81억원을 체
납한 3271명에 대한 주식거래 계좌
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벌여 확인
한 사항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
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온 사례를
확인했다.

시는 주식계좌를 보유한 체납자
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

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
라 주식계좌 압류를 10월 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생계곤란 체납자나
일시적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 분납 등의 조치를 병행할 방
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호
황 속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숨겨두는
행위가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7월 국내 주

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지방
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
사’를 실시한 결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57억원 상당의 주
식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이 가
운데 지방세 체납액은 12억원 상당
이며 이에 대한 계좌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
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2억원 상
당이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일 금요일 음 8월 22일 (14물)

기상 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10%
10%	성 산	10%
10%	고 산	10%
1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7/25℃
모레	흐림 19/25℃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19℃, 낮 최고기온은 22~24℃로 예상 된다. 아침 기온이 낮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니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6:28 해질 18:17	달돋이 22:09 달질 12:27
물때 만조 01:16 14:55	간조 08:16 21:32
자외선지수 높음	산불위험지수 보통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한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서는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제주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급수시설 점검
경기장 수도꼭지 44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
기장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검사 대상
은 경기장 수도꼭지 44개소로 총대
장균군, 대장균, 수소이온농도(pH
) , 잔류염소, 탁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결과
는 본부 누리집 (https://www.jeju.
go.kr/jejuwate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에 앞서 진행된 수질검사에서는
경기장 수도꼭지 33개소 모두 먹
는물 수질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수도본부는 대회 기간 경기
장 수도물 관련 민원 접수 시 현장
조사와 수질검사를 즉각 실시해 대
응할 계획이다.

김형태 상하수도본부장은 “전수
단과 관계자들이 제주를 찾는 만큼
경기장 수도물의 안전성을 미리 확
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깨끗하
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급수시설과 수질관리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시나브로 영글어가는 으뜸열매 10월 첫날인 1일 제주시 조천읍 선출리 명굴원에 으뜸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강희만기자

민선 9기 첫 ‘교육행정협의회’ 23일 개최

7일 실무협의회서 안전 논의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교육행정
협의회’가 이달 예고됐다.

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협의회”가 오는 23일 도교육청 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제
주도와 도교육청이 교육 행정 현안
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다.

이보다 먼저 오는 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선 협의 안전을 선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개최된다. 양측
은 공동위원장이인 도 문화체육교육
국장과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모두 10개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견 조정에 나
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확정된 안건은 교육행정
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된다. 공동
의장인 위성곤 도지사와 고익숙
교육감 등이 합의 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두 수장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부터 제주 미래 교육 혁신과 현안
해결을 위한 9개 협력 과제에 합의
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취임 이후
첫 교육행정협의회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지난 6월 도지사·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합의한 핵심 과제에
는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논의 협
의체 운영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아동·청소년 돌봄체계 구축 ▷IB
교육지구 등 미래 교육 선도지역
육성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개선
등이 포함됐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환자 역외유출 여전

암 47.5%... 추간판 장애는 절반가량 다른 지역으로

한국병원, 관절척추·뇌신경·고혈압당뇨센터 등 운영

제주지역 의료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
하는 제주도민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자치도와 한국병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분석
결과 제주지역 입원환자의 관외 유
출률은 2021년 18.2%에서 2024년
20.4%로 높아졌다. 질환별로는 요
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49.5%, 연
부조직 장애 31.2%, 당뇨 26.6%, 고
혈압 26.4%, 알츠하이머 18.3% 등
으로 제시됐다. 암 질환의 관외 진
료 비율은 47.5%로 나타났다.

한국병원은 이 같은 지역 환자의
역외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
정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강
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관절척추센터 개소를 시
작으로 뇌신경센터와 고혈압당뇨센
터 등 3개 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관절척추센터에는 대학병원
출신 의료진을 포함해 세부 진료

분야별 전문의 4명이 진료하고 있
으며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 장비
도 도입했다. 병원 측은 현재까지
관련 수술이 누적 270례를 기록했
다고 밝혔다. 소화기 분야도 전문의
4명을 확보하고 올해 소화기센터
리모델링을 마쳤다. 소화기 질환의
수술적 치료가 이뤄지는 복강경을
리닉의 복강경수술은 누적 1000건
을 넘어섰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한국병원은 지역 내에서 지속적
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중증
질환 진료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승태 병원장은 “중증질환은 불
론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까지 지역 의료계가 충분히 소
화할 수 있도록 제주 안에서 진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지
역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진료 영역
에서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제5회 제주국제아트페어

www.jiaf.app



JEJU INTERNATIONAL ART FAIR

Pick your Art, Pick your Jeju

기간 10.08 (목) - 10.11 (일), 2026
VIP Preview : 10.08 (목)

장소 ICC JEJU 2센터

주최 | (사)제주화랑협회
주관 | 제주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